社 說

깨끗한 선거와 귀중한 한표

—제25대 총학생회 선거에 부쳐

매년 11월이면 대학 캠퍼스는 과학생회, 단대학생회, 총학생회등의 회장선거로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곤 한다. 다른 해에 비해 금년은 비교적 조용해진 감이 있긴 하지만 선거과정과 양상은 별 큰 변화가 있는것 같지는 않다.

오늘의 대학은 규모가 커진으로써 대학내에는 많은 공식조직들이 존재한다. 예컨데 교수협의회, 교직원노조, 총학생회등은 그 대표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와같은 대학내의 여러조직들은 명명 그들의 회원이나 임원들의 권익을 위해 일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생을 대변하는 학생회의 존재는 어쩌든 필요하며 대학인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 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대학인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수협의회도 교직원노조도 총학생회도 결코 그들의 회원이나 임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대학이라는 더 큰 조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대학은 진리탐구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만이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는 곧 대학은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학생회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와 투표에 임하는 학생들에게 몇마디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학생회장 선거의 입후보자 및 운동원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뉘마라든가 통일이라든가 민중민주주의와 같은 거창한 정치문제보다는 우리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는 더 중요하고도 소박한 진리와 가치의 문제를 추구함으로써 우리대학인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많은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호소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대학내에서의 선거운동은 일반사회에서 벌여지고 있는 추한 선거운동 형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가 술이나 음식물의 향응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돈에 의해 영향을 미치게 한다든가 학연이나 지연을 동원하여 영향을 미치게 한다든가 비열한 인신공격이나 모함으로 상대후보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방법들이 대학에서는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되겠다.

진리의 정의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대학의 지성인들이 일반사회에서 부패한 기성 정치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을 그대로 답습내지는 모방을 한다는 것은 대학의 지성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다음, 투표에 임하는 전학생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귀중한 한표를 값있게 써달라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학생회의 역할은 막중하기 때문에 어느 학우가 학생회장에 선출되느냐에 따라 여러분 개인 자신에게는 물론 학교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깨끗한 선거와 귀중한 한표의 값진 행사를 바란다.

시대는 청년학생의 용기를 갈망한다

—학생의 날 63주년을 맞아

오는 11월3일은 63번째 맞이하는 학생의 날이다.

우리모두 알고 있는대로 학생의 날은 광주보고의 학생들과 일본학생들과의 충돌이 시발점이 되어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지지배에 억눌려온 우리민족의 울분이 폭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여 제정한 날이다. 그러므로 일제의 식민지적 수탈과 탄압에 맞서 민족의 자유와 자존심을 위하여 투쟁했던 최초의 학생운동임을 감안할 때 학생의 날이 가지는 의의는 자못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로 며칠전 하나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것이다.

광주학생운동은 민족의 울분이 폭발하여 전국적으로 번져나간 운동이었고 그 정신도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우리는 60년 4·19학생의거에서 그리고, 6·29선언을 낳게 했던 6·10항쟁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은 3·1 운동이후 잠들어 있던 민족혼을 일깨우고 영구적 권력독재를 꿈꾸던 이승만 정권에게 '하야'라는 뼈아픈 충격과 함께 온 국민에게는 민주라는 단어를 주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부,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는 하루도 존속할 수 없다는 경고를 깨우쳐 주었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어떠했는가.

60년 4·19의거가 군부독재의 준화방 아래 무참히 짓밟혀지고 민족의 역사가 반동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을 때 80년대에 대한민국 전국이후 우리가 그처럼 목이터져라 외쳐대던 민주화의 물꼬를 부분적으로나마 트게 한 것도 바로 이러한 광주학생운동의 정신이 밑바탕이 아니었나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기만적인 밀실담합인 3당합당 이후 국민들의 생활고는 물가폭등, 집값폭등으로 전세값 2백만원이 없어 연탄불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지경에까지 악화되었으며 대선을 맞이하여 몰아치는 광안의 한파는 또다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

또한 외적인 조건은 어떠한가.

1945년이후 양극화되었던 이데올로기 및 동서 양진영간의 냉전체계가 무너지고 우리와 같이 지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분단되었던 독일도 통일을 이룩이 냈다.

이제 우리민족의 역사는 또다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그것은 바로 오는 12월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두고 말하는 것이며, 이번 선거에서 우리민족은 군사독재와 밀실야합의 정치를 몰아내고, 깨끗한 정치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펴나갈 지도자를 뽑아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광주학생운동 63주년을 맞는 이 땅의 청년학생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날의 영광된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 정신을 현실에 계승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올바른 정부,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권을 만들어 내기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그 방법은 60년도 4·19나 80년대와 같은 물리적인 힘보다는 조국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진정한 사명감을 갖고 주동적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시대는 또다시 1929년 빛고을 광주에 울려 퍼졌던 청년학생의 용기와 기개를 갈망하고 있다.

明洞제비평

사진통한 언론의 후보 이미지 조작

지난해 김경래 사건으로 대학생들의 시위가 잦아르자 학생들을 비롯, 매도하는 쪽으로 국민여론을 몰아가기 위해 MBC 뉴스데스크에서 외국어대의 시위현장을 보도하면서 이전 시점대에서 있었던 과격시위장면을 편집, 방영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다.

TV뉴스에서 현장의 모습을 방영하는 것은 사실성과 현장감으로 인해 맨켜의 말보다 훨씬 더 강한 인상을 심어 준다. 그러한 효과를 잘 이용한 언론플레이로 또 다른 예로 87년 대선의 카메라 조작과 91년 월드컵 과정의 사진조작을 들 수 있다. 결프전의 경우 조선일보에는 아이를 안고 웃으며 환송식에 참가한 장교를, 한겨레신문은 어머니와 눈물을 흘리며 작별하는 사병의 모습을 담아 사진을 통한 강렬한 이미지 대립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난 27일부터 대선본격유세가 시작되어 또 하나의 '정부보의 언론플레이'가 연출되지 않을까'하는 의문속에서 그러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어 언론의 중립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의 언론은 87년 대선때와 마찬가지로 가당 후보의 이미지를 살는데 있어 화면과 사진을 이용, 교묘히 여당후보를 미화하고 있다.

실제로 '초반 세불이 대선유세 50일 종정'(조선일보 27일 3면)의 보도사진에서 김영삼 후보는 유세장에서 무따라 오는 많은 사람들을 배경으로 앞서 걷는 모습을, 김대중후보는 2명의 수행원과 선왕주대교 공사현장에서 난 1명의 공사관계자와 함께 한 모습을, 정주영후보는 정씨 시조 시제에 참가한 모습을 담고 있다.

독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진들도 자세히 살펴 보면 김영삼후보는 주위대회등에 참가한 활동적이며 자신있는 면을 강조하고, 야당후보들은 토론회에 참석해 앉아있는 모습등 전체적으로 정적이며 가라앉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사진조작임을 알 수 있다.

'정국왕래'(한국일보 28일 4면) '문의문'(조선일보 28일 4면)에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김영삼후보는 수백명의 시민들에 손을 들어 답하는 모습을, 김대중, 정주영후보는 10여명에 둘러싸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또한 29일자 한국일보(1면), 조선일보(4면)에서는 경의대회에서 짓밟을 뒤로한 김영삼후보의 활기찬 모습을 담은 똑같은 각도에서 찍은 거의 비슷한 사진이 실렸으며 김대중후보는 당내 또는 사회단체의 몇몇 사람들과 환담을 나누는 사진이 실렸다.

지금까지의 관련 사진들을 종합해 보면 무의식 중에 국민들에게 김영삼후보가 벌써 민심을 얻은 듯한 분위기의 사진들이 일관되게 들어가고 있어 자칫 범에 대세는 판가름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다.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대통령이 민자당을 탈당, 중립내각을 구성하겠다는 9·18선언을 한 지 50여일이 되어간다. 이제 대선이 정정당당한 경쟁의 장이 되기위해서는 중립내각의 구성만큼 언론의 중립성확보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은 언론의 활동과 태도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고 비판을 가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하며, 언론은 언론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하기 보다는 MBC노조와 같이 민주언론, 국민의 목소리가 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김일형 記者〉

외설이 부른 문학에의 계엄령

— 마광수 교수 구속 사태를 보며

사론

소설 '즐거운 사라'의 저자 마광수 교수와 이 소설을 출판한 청하출판사 발행인 장석주씨를 지난 29일 검찰은 음란물죄로 구속함으로써 문학, 예술에서의 성표현의 한계와 이에 대한 사법적 공권력 행사의 타당성 여부가, 논란의 대상에 오르고있다.

마교수를 구속한 검찰은 소설 '즐거운 사라'는 리얼리즘에 입각한 순수문학 작품이며 외설여부는 독자의 판단과 자유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마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내용이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는 것으로써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표현의 음란성이 인정되어 마교수의 형사 처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쟁가는 외설이 문제가 아니라 외설시비가 문제라며 성숙한 토론을 거쳐 독자가 판단할 문제를 왜 공권력이 나서서 애매한 잣대로 문학을 재단하려는 하는 것이냐는 의문이 오늘날 소설의 주인공이 곧 모델화이고 보편적인 인물은 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문화계쪽에서도 '즐거운 사라'의 문학적 입장에서는 찬반양론이 상존하지만 대부분 작가에 대한 사법처리는 문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과잉조치라는데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문인들은 법이 예술작품이나 그 표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발상에 대해 강한 반발로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판단, 출판탄압에 대한 집단대응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문제는 문화계내의 토론과 자정기능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오늘날 무분별한 성의 홍수가 범람, 청소년의 정서오염은 물론이고 사회적 윤리의식의 부재가 만연되어 가는 현실에서 당국이 뛰놀게 나서 외설, 음란물 단속의 그물을 당겨 보려는 시도를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뿐만 음란물과 관련 대한 교수의 창작소설을 구분해서 보는 시각정도는 공들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문인들이 표현의 노골화 여부가 외설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소설의 구성과 작가정신 및 사회정신이 고려되어야 할 미묘한 작품세계의 분석과 법으로 판가름한다는 것은 다양한 사상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오늘날 가치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한 기관이 획일적인 윤리기준만을 내세우며 그것만을 개념의 편차도 충분히 고려된 가운데 올바른 성개념에 의해 판가름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의미에서 출판물이 갖고 있는 영향력으로 문학작품이 성표현에 있어 작품성을 떠나 지나친 음란성을 띠게 된다면 그 어느 미디어보다 사회에 해독성을 갖게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출판물은 일부의 특정한 독자만을 상대하는 제한매체가 아니라 일단 서점에 가면 누구나 사볼 수 있는 사실상의 무제한 매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발표된 몇몇 소설 중에 작품이 지나치게 성묘사와 성묘사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들 작품들의 문학적 깊이또한 의문이 제기됨도 오늘 주목할 일이기도 하다.

이른바 90년대의 문학논쟁의 한 줄기로 성적 압박에 대한 문학적 해방이나, 외설이나 하는 논쟁으로 마광수교수의 '즐거운 사라' 하일지의 '겨마잠 시리즈' 하재봉의 '블루 하우스' 장정일의 '너에게 나를 보낸다'등이 문단에서 최근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작품이다.

최근 이러한 작품의 평가가 작품이 '뛰어난 작품'이냐 '저급한 작품'이냐라는 작품상의 갈림길이 성에 관한 이야기라 해서 외설시비에 매도된다는 것은 시비의 맥락에서 분명 이러한 작품성의 문학적 가치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의 '즐거운 사라'가 외설시비만 현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이 작품에 대한 신중한 문학적인 접근은 게을리 한다면 이번 일은 문학적으로 보아도 성표현에 대한 소모적인 논의로만 끝나게 되며 일회성 베스터 셀러를 낳는 웃지 못할 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명 에로티시즘 문학은 문학적으로 승화된 성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문학적 작품에서 성은 중요한 모티브이다. 성의 표현 정도는 여러 작품마다 다르며 성적표현은 작품의 주체는 아니다. 문학도 한시대의 시대적 산물로 그 시대의 사회적 평균사고 속에서 작품이 이루어진다.

결국 문학이 성적표현을 작품의 형상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문학은 또다른 장르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가지게 된다.

이에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평균적 사고와 의식 그리고 환경은 결코 배제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성 그 자체를 상품화, 문화를 상업성한 서적 음란물은 가뜩이나 성의 개방화 풍조에 청소년의 탈선이 크게 사회문제화되는 가운데 저급 문화난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일로 출판계는 물론 문학계에서도 이번 일에 대해 깊은 논의를 가져 출판문화의 발전과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일반독자에게 좋은 책이 읽힐 수 있는 문화를 일구는데 노력하여야 겠다.

〈특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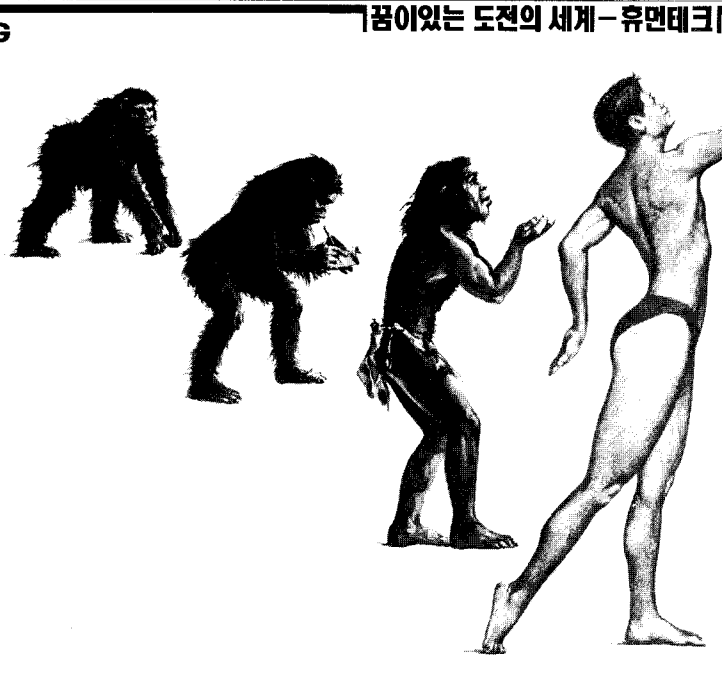
작품성 떠난 사법처리, '과잉조치' 중론

음란여부 판단할 객관적 잣대 필요

'희망사항(?)'

꿈이있는 도전의 세계—휴먼테크

SAMSUNG Electronics



技立說!

진잔트로부스에서 피테칸트로프스,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농인,그리고 오늘날의 인류까지—
200만년전부터 시작되었던 인류의 진화.
두 발로 서기위한 인류의 끈질긴 노력은
결국 오늘날처럼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되어
인류문화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인류의 기술 또한 마찬가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오늘날의 첨단기술을 가능케하였던 것입니다.
기술에 대한 열망이 技術大國을 세울 수 있다는
"技立說"의 신념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온 휴먼테크—
기술로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는 당신과
21세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휴먼테크
삼성전자